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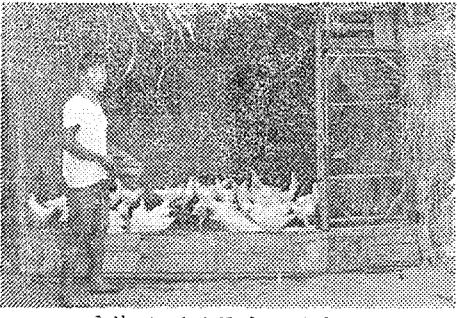
훈련 농장 전경



훈련생의 병아리수송 지도자 : 디·이·보이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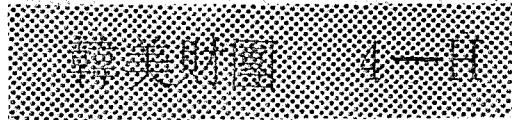
훈련생의 요리실습



충북 오윤용군의 양계과제

우리 나라 4-H운동은 1947년 3월 미 군정 당시 경기도지사 고문으로 있던 찰스·엔더슨 대령의 권장으로 수원 부근에 괴장리 4-H클럽이 조직되므로 시작되었다.

1967년 5월 31일 현재 농촌진흥청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29,292클럽이 조직되었고 회원수는 718,663명(남 418,875 여 299,788)에 달한다고 한다. 4-H운동이 이



렇게 큰 발전을 보게 된 것은 4-H과제활동을 통하여 농촌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교육을 효과있게 할 수가 있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의 호응이 좋았기 때문이며 또 한 가지는 한미재단이 4-H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지원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미재단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52년부터였는데 그 동안 엔더슨박사가 동재단 고문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4-H클럽의 조직 강화·지도자 훈련·과제 장려에 힘써왔던 것이다.

현재 엔더슨박사는 정년으로 귀국하였고 1966년부터는 펜실베니아대학 대학원 출신인 디·이·보이드씨가 그 뒤를 계승하여 모든 4-H활동을 위한 기회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미재단에서는 경기도 소사에 4-H훈련 농장을 마련하고 지도자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농장은 1963년 겨울에 설립되어 처음에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계단식 개간(bench terracing)을 시범 훈련하는 장소로 이용되어 농업 전문가 톨프씨 지도 아래 4·19명의 공무원과 50명의 군인들이 훈련을 받은 바도 있지만 1965년부터는 오로지 전국의 4-H 회원 중에서 선발된 중심 인물을 훈련하는 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미 1968년 말까지 34회에 걸친 단기 훈련 과정에서 881명의 훈련생을 배출하였고 금년부터는 해마다 남자 5회에 200명, 여자 3회에 120명을 훈련시킬 계획을 세우고 실시 중에 있다.

금년 3월 20일에 3주간 과정의 단기 훈련이 시작되어 남자 2기, 여자 1기의 훈련이 끝났으며 지난 6월 12일에 금년도 제4기 여자 회원 훈련이 시작되었다.

필자는 4-H훈련의 기획부장인 보이드씨의 안내로 개강식에 참석한 후 농장 전체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므로 이에 견문한 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훈련 농장은 총면적 2만 여평에 젖소(홀스타인) 9마리 돼지(듀로크·오크사이어) 20마리 탑(페그흔) 1,500마리와 이 가축들을 사육하는 축사가 각각 아담하게 건축되어 있다. 강사진은 보이드씨와 6명의 한국인 강사가 있고 농장에는 관리인과 가축 책임자가 있고 지방에서 추천된 4H회원으로 농장에서 첨식을 하며 1년간 훈련을 받는 장기 훈련생 7명이 있다.

산 언덕에는 계단식으로 개간한 4,500평에 사료용 육수수가 재배되고 있으며 북송아 과수원도 있고 채소원 목초 시험장 등이 규모있게 경영되고 있다.

1968년도의 농장 경영 실적을 보면 우유·계란·돼지·

운전 등장 한국의 4-H

이대 의예과장 김상현 규

기타 수입으로 2,029,595원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계란 20만개, 우유 3만키로, 돼지새끼 100마리를 생산하여 총수입 420만원의 수익을 얻어 4-H훈련 비용을 자급 자족하리라고 한다.

우유는 짜는대로 즉시 냉각할 장치가 되어 있고 든 사에도 어미가 새끼를 깔아 죽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로서 시설되어 있다.

제사는 특히 시범적이라고 할 수 있으리만큼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철사로 만든 상자에 닭을 넣어 가지고 공중에 매달아 기르기 때문에 계란에 오물이 묻지 않고 청소에 편리하며 떡이와 물그릇이 사육 상자에 달려 있어서 작업에 시간도 절약되고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시설되어 있다.

3주간의 강의와 실습으로 단기 훈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훈련생 1인당 7,483원인데 전액을 한미 재단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제4기 여부원 훈련을 위한 과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민·4-H과제·토양·비료·유우사육·양계·양돈과수재배·식품가공·제봉·새끼꼬기·계단식개간·흙벽돌만들기·전학·밤지간에는 영화·토의 등을 가지고 휴식 시간에는 배구·탁구 등을 즐기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칼로리 계산으로 만드는 식사 시간도 즐거워 시간으로 되어 있다.

기숙사는 모두 침대로 하루의 일과는 6시반 기상으로 시작되어 밤 10시반 취침으로 끝난다. 4-H 장학금제도에 따라 1969년도에 고교생 105명에게 연액 15,000원 대학생 36명에게 35,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 밖에 4-H회원을 위한 책자 35,000부를 발행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있으며 4-H경진회·4-H세미나·대학 4-H연구회 등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미재단이 전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을 간추려 보면 전재민 자녀 교육을 위해 시작한 모래내 공민학교와 전기·전신·목공·철공 기술을 교육하는 부산기술학교가 있다.

강원도 철원에는 95,000불을 들여서 60만명을 계단식으로 개간하여 102농가에 분배한 바도 있고 전국적으로 흙벽돌집 지어 주기도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편 후생사업으로는 고아원·양로원·전쟁미망인·화전민들을 위하여 이미 230만불의 거액을 지원하였고 보건사업으로는 폐결핵 퇴치사업에 100만불을 지원하였으며 1967년부터는 군산지역에 병상 100개의 의과병원



경기도 김상현군의 양계 과제



남자 부원들이 교실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여성부원들의 부라우스 재단



전북 김자영 회원의 양계 과제

과 부속병리실험실을 건축 중에 있는데 금년에 완공을 예정이며 장차는 간호학교까지 부설할 계획으로 있다.

이 병원은 본래 베어마에서 메디칼센터를 경영할 계획을 한국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흥물하게 생각한 것은 4-H 수강생들의 희망에 찬 눈동자와 열의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며 부지런히 실습하는 태도였다. ■